

↑ 코스피 2617.80 (+5.37)	↑ 코스닥 744.18 (+3.70)
↑ 금리 (미국 9년) 2.936 (+0.004)	↑ 환율 (원-달러) 1385.80 (+0.80)



불 붙은 美 대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 사진)이 미국 대선(11월 5일)을 불과 8일 앞둔 28일(현지시각) 미시간주 앤아버 유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같은날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향한 나치·파시스트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관련기사 3면) /뉴시스

사업지 7곳 취소, 본청약도 지연 시행사 손절에 ‘청약 난민’ 속출

사전청약 후폭풍

① 예고된 실패

#.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 블록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에 인접한 좋은 입지에 지난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이라고 안내했던 본청약은 2024년 하반기로 미뤄지더니 올해 7월에는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청약 당점자의 지위는 한순간에 날아갔고, ‘청약 난민’ 신세가 됐다. 본청약만 기다리고 있던 A씨를 책임지는 곳은 없었다.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던 장관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주택공급 조기 확대라며 잘 써먹었던 현 정부의 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책이 없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사전청약제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올해 들어서만 사전청약 사업지 7곳이 취소됐고, 대부분의 사업지가 당초 예상보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 막상 본청약으로 가도 사전청약 당시보다 수천 만원씩 오른 분양가가 당점자들을 울리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조바심이 부른 예고된 실패

사전청약은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일반적인 선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취소 안내

귀하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관련 사전청약 계약 취소관련 안내합니다.

본 사전청약의 경우 당 사 및 귀하의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 및 사전공급 계약서 제8조(타사행) (7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려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3, 4 블록 사전청약 취소 안내 공지.

영종도 제일풍경채 계약취소 통보 사전청약 취소 선언만 올들어 7곳

공사비 급등·규제로 사업성 약화 본청약 가도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先)분양보다도 빠른 ‘선선분양’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사전예약’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이 문제가 되면서 2년여 만에 없어졌다.

사전청약이 부활한 것은 문재인정부 때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조기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0년 8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7월 시행했다. 공공에 이어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며 공급 속도전을 펼쳤다.

재도입 당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당첨자가구는 기존 주택 시장의 매수 대열에서 이탈되므로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량 공급 계

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됐다.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조사 등 일반적인 사업 지연 요소에 팬데믹에 따른 공사비 급등까지 겹친 탓이다.

현 정부라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올해 5월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공공분양 ‘뉴홈’ 50만호 공급에 사전청약을 대대적으로 써먹은 뒤였다. 본청약 지연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해 1월 말에도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00호의 뉴홈 청약 접수를 받았고, 10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 민간 사업은 취소…공공도 본청약 지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사전청약 당점자들은 최근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시행사 제이아이주택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고도 취소를 선언한 민간 사업지는 올해 들어 총 7곳으로 늘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동차·양궁 이어 야구까지 ‘정의선의 리더십’ 신화 쓴다

〈현대차그룹 회장〉

양궁·야구 아낌없는 지원에 KIA 타이거즈 올 KS 우승컵 전동화 시대 체질 전환 성공



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스포츠 사랑은 남 다르다. 양궁에 대한 애정은 이전부터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양궁의 경우 선수들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공정하고 깨끗한 양궁협회,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지원해주는 정의선 회장”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KS)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7년 만의 정상 탈환이다. KIA는 올해 KS 우승으로 ‘V12’라는 쾌거를 이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은 2024년 잊지 못할 한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취임 4주년을 맞은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있는 자동차는 물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톱 3를 기록했으며 과거 내연기관 시대 ‘퍼스트 무버’로 체질 전환에 성공했다. 또 그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는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 28일에는 현대차그룹 소속 KIA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정의선 회장의 리

야구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다. 정의선은 과거 KIA 타이거즈 구단주를 맡을 정도로 야구에 쏟은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야구는 선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해 승부를 내는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 더 전략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이에 KIA 구단에서는 지난해 1군 선수단과 코칭스텝에게 배틀릿 PC 1대를 선물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판단 승인”

교육부, 대학총장 영상 간담회 의대 학사 정상화 공감대 형성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마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기 시작한 뒤 8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일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조건부’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과 의사단체는

연이어 정부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조건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라며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포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라·북 야합 우리안보 위해 가하는 엄중 사안… 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
▲ 한 총리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 만학도도 무상급식 드실 날 오길” (사진 뉴시스)

▲ 여 중진 5명 공동성명,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당은 갈등심화 안 돼”
▲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재명 무죄 서명 여론전 본격화



▲ 조국혁신당, 30일 금투세법 당론 발의… “예정대로 내년 시행”
▲ 김용현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사진 뉴시스)

2026년까지 6.7조 투입... 주택·주거비에 스투메까지 지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무주택 신혼에 '미리 내 집' 1000호 거주기간 10년, 자녀 낳으면 20년 일·생활 균형 실현 중소기업 인센티브 육아용품 반값 온라인몰 내년 오픈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결혼 살림비 지급, 육아용품 반값 할인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양육자에서 신혼부부, 난임부부로 넓혀 출산·육아·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일·생활 균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난임시술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8월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출생아 수의 선형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 ▲일·생활 균형 정책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올해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 내 집'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물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은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

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급을 시작한다. 2025년엔 1380가구를,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후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임산부에게는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주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 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들이 스

스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결혼 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만가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시는 필수 육아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 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이 돌봄도 정책도 강화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차지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hjk1@metroseoul.co.kr

>> 1면 '사전청약 후폭풍'서 계속

“北, 러시아 파병 3000명 파악... 연내 1만명 넘을 듯”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 고위급 군 장성 포함 가능성 장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병사·가족들 입단속 정황 포착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입단속을 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 소식이 퍼져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현재까지 3000명, 혹은 이보다 많은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연말까지 총 1만9000명이 파병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선 투입 여부는 확인해지지 않았다.

이성권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단속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라는 주민과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파병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위장파병’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북한군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준 군복, 러시아가

준 무기, 러시아 체제 속에 편입된 상태라 파병이 맞긴 하지만 위장파병이 맞지는 아니냐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이 오간 사실도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하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파병으로 인한 국제 사회 반발과 관련된 의견 조율이 목적이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번 방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번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로의 노동자 공출도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 들어 4000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

“지연기간 등 신속안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 수립 지원”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을 시작으로 경남 밀양 북부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통한 사업이 취소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부진한 곳도 있지만 동탄과 운정 등 수도권 인기 지역도 시행사들이 손을 들었다.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의 시행사였던 DS네트웍스도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공공택지를 맡겼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1만 가구가 넘는다.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 취소는 없었지만 본청약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2021년 7월 1차 사전청약 단지부터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고,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 지구에서는 성남 북정2와 군포대야미 등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지게 된 단지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에서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이나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온라인 쇼핑 증가, 물가 끌어내린다”

KDI, 온라인 소비 확대 영향 1%p 상승시 물가상승률 0.07%p ↓ 숙박·음식점업 등 일자리수는 감소

온라인 소비의 확산은 물가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문 고용부진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온라인 소비가 1%포인트(p) 늘면

상품 물가의 상승률은 0.07%p 둔화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29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DI 현안분석-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의 비중은 지난 2017년 14%에서 2024년 27%까지 확대됐다. 이는 해당 7년간 소비자물가를 2.4% 낮췄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커지면 당해 연도 상품 물가상승률이 0.07%p 하락하는 효과를 냈다.

김총괄은 온라인 소비와 밀접한 3개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의 취업자 수를 고용변수로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업종별로 상이했지만 대체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한 1~2개 분기 후 영

향이 극대화됐다. 1~2년 후에는 그 영향이 사라졌다.

고용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늘어났을 때 이 부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 분기 후 최대 2만 7000명 축소됐고 약 2년간 유의미한 파급 효과가 지속됐다.

도·소매업도 같은 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최대 2만 7000명 축소됐다. 반면,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대북정책 등 3國 외교·안보 요동

〈해리스〉

〈트럼프〉

〈한·미·일〉

2024 美 대선 (下) 국제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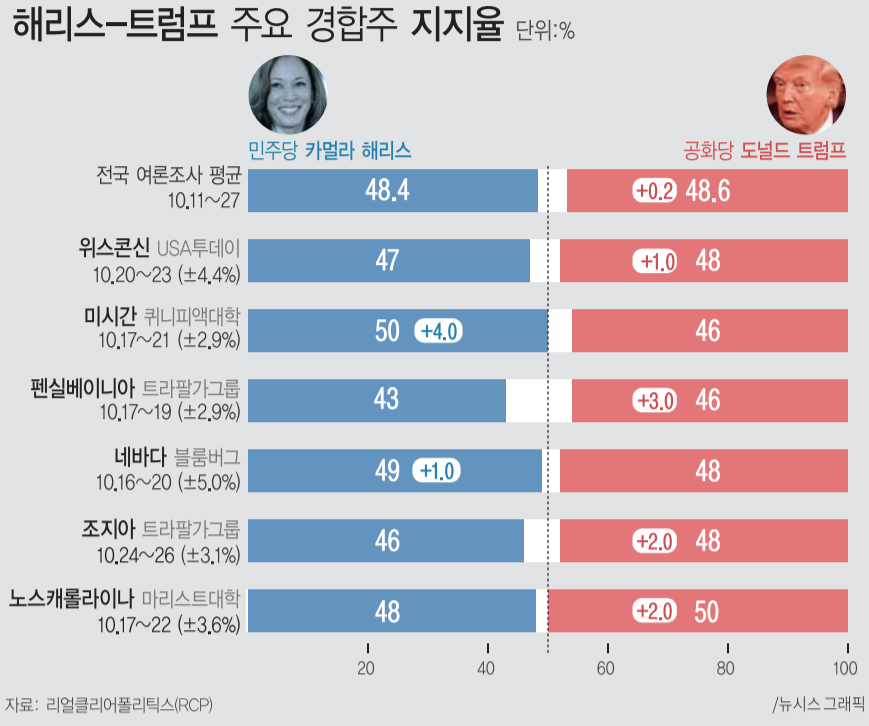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유지 전망
중 디리스킹... 공급망 다변화 초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북정책 공격적인 스탠스 보여
중 강경 대응... 디커플링 가능성

우리 정부는 내달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급변할 수 있어서다. 그만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 대북(對北)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 계승... 한미 관계 유지 전망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한미는 북핵 억



제를 위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해, 합동 군사 훈련 확대·전략자산 상시배치 등의 조치를 실행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국제 현안 대응에 함께 할 '가치 연대'의 주요 멤버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이전보다 긴밀해졌다. 대북 정책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어느 정도 계승했으므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 간의 협력과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

제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배치나 합동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등 기존에 취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관계도 기존 '디리스킹(de-risking)'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다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트럼프, '톱다운' 선호... 한미 관계 변수 작용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 한미관계는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경제적 혜택을 제시했지만, 재임 초기에는 필요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다자주의외교'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방주의외교'를 시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방주의 외교는 한미일 3자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밀착을 선호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일동맹의 안보적 측면은 강화했지만, 미일 간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한미일 3자 구도가 아니라 한미·미일 1대1 구도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재집권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행정부'가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정의선 회장 야심작 '더 기아 타스만' 첫 선

〈현대차그룹〉

가솔린 2.5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 최고출력 281마력... 3500kg 견인 가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야심작인 기아의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이하 타스만)'이 공개됐다.

기아는 2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호텔파크하비오와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타스만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뛰어난 상품성을 통해 고객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더하며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Dive into a New Dimension)' 시키는 정통 픽업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과 한국 GM 콜로라도와 픽업 시장을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타스만의 전면부는 가로로 긴 비례감을 갖춘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로 강인한 인상을 표현했다. 후드 상단의 가니시와 그릴 테두리를 조합해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형상화했으며 수직형상의 시그니처 램프를 좌우로 배치해 웅장한 전면부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기아는 타스만에 12.3인치 클러스터,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cc NC 기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고객이 타스만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행 정보를 시인성 높게 전달한다.

타스만은 오프로드와 온로드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



기아 '더 기아 타스만' 외장.



기아 '더 기아 타스만' 실내 모습.

을 확보했다. 가솔린 2.5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 토크 43.0kgf·m를 발휘한다. 또 4WD 시스템을 통해 샌드, 머드,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제공하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도 지원해 노면에 맞도록 차량을 최적 제어한다.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등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을 확보했다. 여기에 트레일러, 요트 등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 성능도 확보했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휠 하우스 1186mm) 높이 540mm를 갖췄으며 베드 라이너와 차체를 최대한 밀착시켜 적재 용량을 최적화했다. 타스만은 동급 최대 수준인 약 1173ℓ(VDA 기준)의 저장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으며 한국 기준 표준 팔레트(1100x1100mm)도 수납할 수 있다.

또 타스만은 고객에게 일과 외 모든에서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과 선도적인 기술력, 넓고 편안한 실내와 활용성 높은 적재 공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고객의 삶과 픽업의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자 한다"며 "탁월한 성능과 실용성, 진보적인 기능을 결합해 라이프스타일 픽업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소규모 사업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美,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對中 투자 통제

정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 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2월 1일 시행된다.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행정규칙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0대 이범호 감독 지휘봉... 도전·혁신 주효

>> 1면 '자동차·양궁 이어 야구'서 계속

선수단은 해당 태블릿PC를 활용해 자기 개발과 함께 구단에서 제공하는 전력분석 자료 활용 등을 목적으로 적극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어수선한 상황에서 프로야구 감독 중 가장 젊은 40대 초반의 이범호 감독이 KIA 지휘봉을 잡은 것도 정 회장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평소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젊고 능력있는 감독을 발탁해 선

수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부임 이후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선수간 격차가 없다보니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기보다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바로 후배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팀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온 '소통·공감·도전·혁신'을 느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구글 세금 회피, 디지털세 도입 절실... 국가 간 협력이 필수

글로벌 빅테크 세금 회피 문제
G20,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美, 자국 기업 보호에 보복관세 경고
“세계 디지털 기업 과세방법 검토”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답보상태다. 해당 기업들의 저항도 있지만 대다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모국인 미국이 관련 법안 도입에 따른 관세보복 조치를 한 바 있어 더욱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주요 인사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구글세(Google Tax)로도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는 특정 국가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매겨지는 법인세와 별도 세금을 뜻한다. 기존 국제 조세 기준으로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을 때만 과세 가능했다.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조세 기준에서 벗어나 ICT 기



구글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돈을 제 3국가 법인의 매출로 이전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2020년 G20에서 2023년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 합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첫걸음도 못 떴고 있다. /DALL-E 이미지

술 특성을 반영해 실제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됐다.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 디지털세를 적용받는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국적 기업으로써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정부차원에서 법안 조사를 시작해 “디지털세 제도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며 국제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최대 24억 달러 규모의 100%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던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 9개국 또한 조사대상이 돼 관세 제재 조

치 등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연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디지털세 도입을 시도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보복 조치는 2021년 글로벌 조세개혁안 합의 후 일부 해소됐다. 당시 G20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조세개혁안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16억 달러, 30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의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한국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논란만 일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앞서 EU 반독점당국이 애플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총 130억 유로(19조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리고 항소심까지 이겨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EU 반독점당국은 지난 2016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이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불과하다며 체납세

금과 이자를 합쳐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쟁사에 불공정한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다. 애플은 해당 부과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정이났다.

해외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실행이 시작되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디지털세가 논란으로 떠올라 여느 때 보다 관심이 커졌다. 지난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작년 국내 통신망 사용 비중이 28.6%에 달하지만 매출과 법인세는 축소 신고됐다”며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럽 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디지털세 도입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예상...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국은행 총재)

기재위 국감

“美 대선 결과, 11월 금리결정 큰 변수”
금리인하 체감, 단발적 인하로는 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내년 경제 전망과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거시안정성 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부적으로는 금리인하 압력과 대외적으로는 여러 금리 인상 요인이 있어 원칙을 가지고 금리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 경제성장률 ‘수출’ 따라 달라져

이 총재는 수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 수출금액은 떨어지지 않은 반면 수출액은 떨어지고 있다”며 “자동차파업 등 일시적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요인으로 수출물량이 떨어진 건지, 화학제품·반도체의 단기는 올라가는데 중국과의 경쟁으로 물량이 안 나가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전망치와 크게 달라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한은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을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전망한 0.5%보다 0.

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이 일정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었지만 수출금액이 떨어지지 않은 채 수출물량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올해 3분기 GDP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보다 낮아진 2.2~2.3%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내년에도 성장률이 낮아질 지 여부는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1월 금리,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

이 총재는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3월 -1조 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까지 올랐다가 9월 5조 7000억원으로 둔화했다.

이 총재는 방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10월에도 효과가 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하고 은행의 대출공급을 옥죄 가계부채와 수도권중심의 매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둔화하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11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여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 결정에 새로운 변수에 대한 질문에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 달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4.6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섰다.

달러 약세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반(反) 이민 정책과 관세 부과 방침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강세가 더 강해질 수 있어 금리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금리인하 체감, 1회만으론 부족

이날 이 총재는 한번의 금리인하로는 서민들이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로 체감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의 경우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전에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해 (미리) 낮추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금리인하 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리를 1회 낮출 경우 효과가 적고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추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바이오 정책 수립 규제개선 역량 총집결”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대통령이 위원장... 민간위원 40명

정부가 바이오 경제와 안보 등 국가 바이오 정책을 결정하는 범부처 민간 거버넌스 구성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간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간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간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 수립 △규제검토·개선 △연구개발 전략,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대중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 바이오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당정,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
한동훈 "尹 3년차, 성과 체감시켜야"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정쟁 관계없이 추진...野 적극 설득

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기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 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

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 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 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답페이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문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4대개혁' 연내 성과 주문... 임기후반 국정동력 도모

(연금·의료·교육·노동)

국무회의서 개혁 과제별 시한 제시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미래 없어"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위로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낸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비전제시는 '참신'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우상향 성장·격차해소특위 등 제시
당내 갈등, 빈손면담 등 리스크 요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

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박태홍 기자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 열려

우원식 "국가 책임 부재... 대표 사과"

정기권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기관 주도의 공적 추모제로 열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159의 이름과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박태홍 기자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똥대로 유연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똥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똥대로 유연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하나금융 누적순익 3.2조... “3년내 주주환원율 50% 달성”

(1~9월)

3분기 1조1366억 당기순익 달성
이자이익 줄고 비이자이익은 늘어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확대 등 영향

3분기 주당 배당금 600원 결의
1500억 규모 자사주 추가매입·소각

하나금융그룹이 3분기에 1조13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누적(1~
9월) 순이익은 3조225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하나금융은 단계적 주
주환원 확대를 오는 2027년까지 주주환
원율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29일 실적발표를 통해 3
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5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에 따라 이자이익이 감소했지만 비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올 3분기 이자이익을 살펴보면 6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금융그룹

577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 감
소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
(NIM)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1조8049억원으로 같은기

간 6.4%(1085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수수료이익은 1조5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1650억원) 증
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투자은행(IB) 부
문의 수수료가 증가하고, 퇴직연금 운
용 관리 수수료가 확대된 영향”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도 늘어나는 등 그룹
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이 실
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
이자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3분
기 말 각각 0.62%, 0.55%를 기록했다.
각각 전 분기보다 0.05%포인트(p), 0.
06%p 올랐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
및 가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손비용률은 0.25%로 전년 동기 대
비 0.17%p 하락했다. 주요 경영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2%, 총자
산이익률(ROA)은 0.71%로 집계됐다.

이날 하나금융은 그룹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율 ▲
보통주자본비용(CET1) ▲자기자본이
익률(ROE) 밸류업을 3대 핵심지표로
선정하고, 구체적 목표와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명시했다.

우선 자사주 매입확대, 분기별 균등
배당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달성한다.

또 자본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CET1
을 13.0~13.5%로 관리, 구간 내 일관된
주주환원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정적인 CET1 유지를 위해 위험가중
자산(RWA) 성장률 목표를 명목 국내
총생산(GDP) 수준으로 제시해 자본관
리 및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더 구체화
했다.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은 10% 이상 유지할 계
획이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3분기 주당
배당금을 600원으로 결의했다.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추가 매입·소각한
다. 연간 매입·소각규모는 3분기까지
매입·소각한 3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총 4500억원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경기불황 반사이익?... 여전업계, 할부 수익 대박

8개업체 할부카드 수수료 1.7조
고금리에 무이자 할부 혜택 줄여
캐피탈, 후 할부금융 수익 역대급

불황 여파로 여전전문금융회사(여
전사)가 할부로 벌어들인 수익이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가 무
이자할부 혜택을 축소하고 일시불결제
에 부담을 가진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
이다. 할부금융(캐피탈)사의 경우 자
동차 판매 부진에도 역대급 할부 이익
을 거뒀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가 8곳(신한·삼성·KB국민·
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할
부카드수수료는 1조7037억원이다. 전
년 동기(1조5326억원) 대비 11.2% 증
가했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사의 할부
수수료 수익은 1000억원 안팎으로 상승
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연간 4000억원
넘게 늘었다.

수수료 이익 반등 배경에는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때문이다. 지난
해 고금리 여파에 여전채(AA+/3년
물) 금리가 오르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했던 무이자할부 혜택을 2~3개월
로 대폭 줄였다. 최근 일부 카드사를 중
심으로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이 부활
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양상이 올 상반
기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 환파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할부
에 의존한 소비자도 증가했다. 여전금
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8곳의 개인신
용카드 할부 누적잔액은 지난 8월 기준
55조3980억원이다. 전년 동기(50조
9561억원) 대비 8.71% 증가했다. 신용
카드 할부 금리는 기간별로 차등 적용
한다. 최소 연 6%에서 법정최고금리
(연 20%) 근처(연 19.9%)까지 부과한
다.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
아진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할부 기간을 축소할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상황에 대응한 것”이

라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자
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무이자할
부 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캐피탈사 또한 불황에 반사이익을
누렸다. 자동차할부금융수익이 급증하
면서다. 올 상반기 캐피탈사 25곳의 자
동차할부금융 수익은 7825억원 규모
다. 전년 동기(6282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지난 2019~2022년 캐피탈사
의 자동차할부금융 수익은 등락을 반
복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다.

반면 차량 구매자는 감소했다. 올 상
반기 국내 완성차 5곳의 내수 판매량은
67만373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었다. 지난 2010년부터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이 7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과 2013년, 2022년과 올해
단 4번 뿐이다. 고금리 이자와 함께 현
금으로 차를 사기 어려운 고객이 많았
다는 설명이다.

차량 단가가 높아진 것 또한 자동차
할부금융수익 증가 요인이다. 한국자동
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산
승용차의 평균 가격은 3046만원이다.
▲2021년(3277만원) ▲2022년(3511만
원)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카플레이션
(자동차 가격 상승 현상)과 고금리 기
조에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가 가속화할
수록 관련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의견
이 나온다. 입문용 차량 구매자는 줄
어드는 반면 주요 소비층으로 분류되
는 중년층의 경우 차량 등급을 높이는
등의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
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신차가격 인
상과 고금리 여파에 자동차할부수익이
확대됐다”며 “고객들의 차량 구매 유행
도 변하고 있다. 과거 중형급을 타던 소
비자들이 대형차를 선호하는 현상이나
타났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금융그룹 청년도약멤버십 3년 연속 ‘우수’

하나금융그룹은 ‘청년도약멤버십 컨
퍼런스’에서 우수 청년고용 ESG 프로그
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활동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멤버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수한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
하고 지원해 청년 친화적 ESG 활동을
확산하려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다.

하나금융은 2022년부터 진행해 온
‘하나 소셜벤처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 상생기업 분야에서 우수활동
기업으로 선정돼 현판을 수여받았다.

하나 소셜벤처유니버시티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연계해 창업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창업생
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하나금융그
룹의 대표적인 사회가치창출 프로그램
이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은 2022년도에 5개 권역 10개 대학교와
시작해 2023년부터는 전국 30개 대학교
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3550명의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실무 교육을 수
료했으며, 이중 221팀이 창업에 성공해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다.

한편, 하나금융은 사회혁신기업과 구
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연결하는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하나 디지털 파
워온 프로젝트’, 자립 준비 청년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세대들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나유리 기자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내달 분양

GS건설, 전용 59~125㎡ 797가구
불당지구-아산탕정2 중심축 자리

GS건설은 다음달 충남 아산시 탕정
면 동산리 일원에 ‘아산탕정자이 퍼스
트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
혔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아산신
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
급이다. 구역 내 3개(A1·A2·A3) 블록
총 367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
며, 11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시작으로 순차 분양에 들어간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지하 2
층~지상 35층, 6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A 102가구 ▲59㎡B 34가구 ▲
84㎡A 466가구 ▲84㎡B 95가구 ▲84
㎡C 65가구 ▲84㎡D 30가구 ▲125㎡P
A 3가구 ▲125㎡PB 2가구 등 총 797가
구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전안을
대표하는 불당지구와 중부권 최대 도시
개발사업으로 예정된 아산탕정2를 잇
는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불당지구는 학원가, 다양한 편의시
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아
산탕정2는 약 4만 5000명 수용하는 규
모로 조성되며,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사업지와 불당지구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A1블록) 조감도.

/GS건설

가 고가로 연결될 예정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
치했다.

일부 세대에 4베이, 3면발코니 평면
구조 적용으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

화했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적용
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한편, 건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
당동(불당119 안전센터 부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
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리튬 등 배터리 소재 가격 반등 양극재기업, 실적 개선 ‘청신호’

리튬·니켈 가격 동반 상승세
중저가 전기차 등 수요 증가 전망
“긍정적인 변화 이루어질 것”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극재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29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 KOMIS에 따르면 10월 리튬 평균 가격은 kg당 71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평균 70위안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니켈 가격은 29일 기준 1만6168달러다. 1년 내 최고치인 2만1270달러 대비 76% 수준으로 내려왔으나 단기 하락세는 벗어난 모양이다. 지난 9월 최저점이었던 1만5701달러와 비교했을 때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튬과 니켈은 배터리 양극재의 원재료다. 양극재는 리튬, 니켈 등 광물들을 조합해 만든 소재로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필

수 소재다. 양극재의 판가는 광물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이기에 소재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인 긍정적 레깅 효과로 인해 광물 매입 시점과 양극재 판매 시점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확보한 광물로 양극재 기업이 소재를 생산하면 통상 2~3개월 뒤 판매 시 오른 광물 가격에 연동해 대금을 받는 구조다. 최근에는 니켈 가격의 하락으로 부정적 레깅 효과를 얻어 양극재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니켈 가격이 우상향하는 요인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꼽고 있다. 원재료와 광물의 큰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 비철금속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중저가 전기차 수요 증가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세론도 나왔으나 니켈 수요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장조사전문기관 SNE리서치는 최근 2024 배터리 니켈 매

탈 리포트를 통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니켈의 수요가 2024년 53만톤에서 오는 2030년 133만톤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원계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니켈의 사용 비중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재 업체들도 니켈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예코프로는 중국 전구체 제조사는 GEM과 인도네시아에서 통합 양극재 사업을 추진한다.

GEM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형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긴 하나 아직 업계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내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글로벌비스, 주요 법인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미주 4곳, 유럽 3곳, 아태 3곳 인증

현대글로벌비스가 해외 주요 법인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으며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낸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법인 10곳이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 14001 인증은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통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미주권역 4개 법인, 유럽권역 3개 법인, 아태권역 3개 법인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현황을 조사했으며 ‘환경법규 및 준수평가 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인증 획득과 함께 지난해 10월 공표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당시 현대글로벌비스는 탄소중립 달



문병섭 현대글로벌비스 안전환경경영실장(왼쪽)과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로이드인증원에서 열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성을 위한 로드맵 중 하나로 오는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주요 해외 법인이 환경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만큼 국내외의 현대글로벌비스 전 구성원이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기, 3분기 好실적... AI·전장 주효

매출 2.6조, 영업이익 2249억
내년 AI 가속기용 FC-BGA 양산

삼성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AI·전장 등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기는 올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6153억원, 영업이익 2249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86억원(11%), 영업이익은 368억원(2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 427억원(2%), 영업이익 134억원(6%)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AI와 전장 등 고부가 제품의 공급 증가가 꼽힌다.

삼성전기는 AI·전장·서버 등 시장 성장으로 AI용 MLCC 및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기판, 전장용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이 증가해 전년 동기,



삼성전기 세종 사업장 /삼성전기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제품의 경우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매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버·AI용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또한 올해 매출이 중앙처리장치(CPU)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는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전화회의)에서 “내년에도 이들 AI 서버 관련 매출은 올해 매출 성장에 준하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AI 가속기용 FC-BGA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FC-BGA는 고성능반도체를 위한 기판으로 이 또한 고부가 제품으로 꼽힌다.

삼성전기는 전장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FC-BGA 기판과 글로벌 거래선향 전장용 카메라 모듈 공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내년 이들 제품의 가동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현정 기자

에쓰오일, 액침냉각 ‘e-쿨링 솔루션’ 출시

고인화점 액침냉각 신제품 개발

에쓰오일이 고인화점 액침냉각유인 ‘S-OIL e-Cooling Solution(에쓰오일 e-쿨링 솔루션)’을 출시하고, 한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에쓰오일은 인화점 250℃ 이상의 고인화점 신제품을 개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글로벌 톱 티어 서버사가 제조한 서버를 활용하여 고인화점 제품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서버의 안정적인 구동과 우수한 열 관리 성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인화점 제품은 특히 위험물안전규제가 엄격한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시장에서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 기술을 도입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에 따른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 제



에쓰오일 직원들이 액침냉각유 성능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쓰오일

품(인화점 250℃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인화점 제품의 경우 아람코 자회사(Valvoline Global Operations)를 통하여 복수의 액침냉각 시스템 개발사와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도 자사 제품의 입지를 다져 나갈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SK이노, 2년 연속 ESG 평가 ‘A+’ 등급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며 상위 0.7% 안에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이 시행하는 2024년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4개사 중 A+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20개사로, 이 중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6개사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의 상위 0.7% 수준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계열사 중 하나인 SK아이이 테크놀로지도 2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및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ESG 실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2년 연속 A+ 등급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SK이노베이션은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지난해 이어 A+ 등급을 유지했으며, 환경(Environmental) 영역에서도 A 등급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및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ESG 경영의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나서나... 영풍 “배임소지 있어”

우호지분 확보로 의결권 격차 완화 분석

고려아연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영풍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넘기는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은 물러설 수 없는

주총 표 대결로 맞붙게 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금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 정도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 5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인 자사주 28만9703주(지분율 1.4%)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의결할 것

으로 본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과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7월 1495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을 끝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인 이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영풍 측과의 의결권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가상 속에 현실 담다”... 디지털 트윈, 제조·에너지 혁신 주도

삼성, 반도체 공정 디지털 트윈 도입
LG, 스마트팩토리서 실시간 품질 관리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구축
한국전력, 발전소 운영 효율·안전성 ↑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사물과 환경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제조, 물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최근 인공지능(AI)과의 결합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조업·물류·건설... 국내 기업들, 디지털 전환 가속화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2030년까지 반도체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디지털 트윈 데스크톱(DF)을 신설하고, 지난해 4월 디지털트윈 분야 전문가인



Chat GPT에 의해 생성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제조, 물류,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이영웅 부사장을 TF장으로 영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는 미세한 공정 하나라도 생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산업”이라면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공정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조기에 감지해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AI 답러닝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생산 체계를 갖추며,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 기지인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다.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생산시설·물류 시스템은 물론 현장 인력과 자동화 로봇 등 공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고스란히 옮겨 가상

공간에서 공장을 작동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실제 공장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에너지 업계, 디지털 트윈으로 효율·안전 강화

에너지 업계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발전소의 가상 환경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상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APR1400 원자로의 국산 제어 시스템(MMIS)을 디지털 트윈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검증과 운영 시 고장 발생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APR1400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HS효성첨단소재

글로벌 ESG 평가서 ‘플래티넘 메달’ 획득

HS효성첨단소재의 ESG 경영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4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에코바디스 평가에 참여한 모든 글로벌 회사 중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83점을 획득하며, 에코바디스 평가에 참여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골드 메달’을 획득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 제도가 개편되어 등급 부여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성과는 HS효성첨단소재가 전 사업장 배출량 관리 시스템 및 SBT(Science-based Target,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공급망 관리 정책 재정비, 공급망 실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 부분 전년 대비 개선된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자동·지능화 네트워크로 품질 혁신”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 첫 공개
서비스 품질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LG유플러스가 자동화·지능화 기반 네트워크 운용 노하우가 담긴 통합관제센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사옥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네트워크 운영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동화 운용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3월부터 가동된 통합관제센터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네트워크와 외부 서비스의 품질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 /LGU+

통합관제센터는 LG사이언스파크 부속 유플러스마곡사옥 1~2층에 1410㎡(약 427평) 면적으로, 네트워크·CTO

(최고기술책임자)·사이버보안센터 등 서비스별 전문 대응력을 갖춘 임직원들이 고객에게 안정적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관제센터에는 한국을 방문한 가나 통신·디지털부와 말레이시아 통신부 등 ICT 분야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찾아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운용 자동화를 통한 고객 중심 품질 관리 노하우를 살펴봤다.

649인치 규모의 초대형 스크린(월보드)이 들어서 있는 상황실에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등급별 장애,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스크린에서는 LG유플러스의 유·무선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메신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90여 종의 외부 서비스의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성능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황실 옆에는 대규모 장애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진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휘통제소(War Room)가 마련돼 있으며, 전국 운영 조직을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도 갖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가 경기 평택항서 시범 운영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렌스포터.

현대자동차

‘수소 카트렌스포터’ 평택항서 시범 운행

국내 최초의 수소카트렌스포터 차량(차량 운반용 트럭)이 평택항을 달린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8일 경기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국내 최초의 수소카트렌스포터(차량 운반용 트럭) 차량 인도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운행 중인 디젤 카트렌스포터 차량을 수소 기반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택항카트렌스포터수소 전환 시범운영사업’의 일환이다. 현대차는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글로벌서비스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엑시언트 수소 카트렌스포터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6x4 새시캡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돼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 해당 차량에는 350kW급 모터와 5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 성능을 자랑하며, 수소 탱크 용량은 총 27kg H2(700bar × 4ea)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380km이다. /양성원 기자 ysw@

LG CNS, 슈퍼앱 사용자 경험 혁신 만든다

‘프론티어 라이브’ 출시

LG CNS가 29일 슈퍼앱과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 개발 도구 ‘프론티어 라이브’를 출시했다. 슈퍼앱은 ▲뱅킹 ▲쇼핑 ▲채팅 등 개별 앱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한 것이다.

기업고객은 ‘프론티어 라이브’를 통해 ‘마이크로 인터랙션’ 기술을 슈퍼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클릭, 텍스

트 입력, 공감표시와 같은 행동에 따라 디지털 기능이 적절한 시각적 효과를 보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프론티어 라이브로 개발한 슈퍼앱은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창에 한 글자만 입력해도 적합한 상품이나 맞춤 서비스를 디자인 효과와 함께 화면에 표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카카오모빌리티, 로보티즈와 협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로봇 기업 로보티즈와 실내·외 배송로봇 서비스 출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서비스 ‘브링’을 활용해 실외 배송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브링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오픈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플랫폼 ‘브링온’(BRING-ON)을 여러 기종의 배송 로봇과 결합한 서비스다. 식음료 배달이나 사무실 내 우

편배달, 호텔 내 컨시어지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브링온은 로봇 배송 서비스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다양한 배송 주문과 다른 기종의 로봇을 연동해 복잡한 배송 주문을 플랫폼에서 분류한 뒤 각 로봇에 최적으로 배차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브링온을 활용한 배송로봇 연동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보티즈와의 실증으로 적용 사례를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한다.

/이혜민 기자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투자자예탁금, 하루 만에 3兆 늘어 내달 코스피 박스권 탈출 기대감

투자자예탁금, 54.4兆로 급증
외국인 삼성전자 순매도 행진서
실적발표 앞두고 순매수 전환

내달 美 대선 등 리스크 해소
불안심리 진정... 상승세 전망

감소세를 유지하던 투자자예탁금, 신용잔고 등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증시 반등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글로벌 변수로 인해 가중됐던 불안심리가 진정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코스피 분위기도 반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51조2324억원이었던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바로 다음 거래일인 21일 54조4339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업 실적 발표와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 등 시장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긴 돈으로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투자 열기의 가늠자로도 활용되는 만큼,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던 지난 8월 5일 이후 투자자예탁금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이날 투자자예탁금은 59조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5거래일 만에 53조대로 내려앉았으며, 9월 20일과 이달 8일 50조대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26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했고,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등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반감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시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 이미지.

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29일까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장 등)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9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역시 16조6700억원에 그치면서 월별 기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였던 지난 1월에는 19조4000억원이였으며, 3월에는 22조7000원까지 올랐던 바 있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변수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투자자도 하반기 들어 12조5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에 기여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는데, 최근에는 33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해당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24.87%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다. 다만 31일 실적발표를 앞두고 34거래일(28일)째에 순매수 흐름으로 전환됐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에 대해 냉랭했던 외국인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꺾였다"며 "외국인의 매수 폭(100억원가량)이 크지 않았지만 34거래일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 전환하자 증시도 1%대 강세를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용거래잔고도 소폭 늘어나면서 증시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달 19일 연중 최저치인 16조9923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25일 17조9581억원까지 회복됐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월에는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고, 채권금리, 달러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서 불확실성 완화, 불안심리 진정 등으로 4분기 코스피는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변신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내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동일한 제도 내 같은 상품 취급해야
갑작스러운 '머니무브'는 없을 듯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은행과 증권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의 실물이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사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은행·증권·보험 등 다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최초 가입한 금융사의 퇴직연금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기 위해, 기존에 가입했던 모든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에야 원하는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 퇴직연금 자산을 최초 가입한 업권에서 옮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은행권의 과점 체제 성향이 강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400조878억원 중 은행이 52.56%(210조2811억원)을,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24.13%(96조5328억원), 23.31%(93조265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로 퇴직연금 시장의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고물가와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별 수

익률은 증권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은행(4.87%), 손해보험(4.63%), 생명보험(4.37%) 등이 이었다. 이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타 금융권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이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리츠나 사모펀드 등은 상품 특성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도 현금화한 뒤 자산을 옮겨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31일 이후 갑작스러운 '머니무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노머스 "글로벌 종합 엔터 솔루션 기업 도약"

IPO 간담회

데이터 기반 선호 콘텐츠 등 분석
올해 반기 매출 277억... 흑자전환
공모자금으로 신규 IP·운전자본 확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경쟁사들은 팬플랫폼, 공연, MD에 전념하는 등 대부분 단일 비즈

“이번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글로벌 종합 엔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김영준 노머스 대표(사진)는 2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한 중장기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설립된 노머스는 종합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원더월'과 '프롬'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커머스, 공연, 팬덤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팬들의 선호 콘텐츠와 상품 형태, 연령 및 국가별 평균 소비 패턴, 사용자당 평균 매출(ARPU) 등을 분석해 보다 효과적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김 대표는 "노머스의 데이터로 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과 어떤 장면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멤버를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커머스 사업에서는 선호하는 상품 형태와 ARPU, 구매 주기, 나이·국가별 평균소비 패턴 등 전반적인 소비 관련 지표가 축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머스가 확보한 아티스트 IP는 325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역량을 통해 노머스는 올해 반기 기준 매출 277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기록하며

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나 노머스는 하나의 아티스트 IP에 대해 음원·음반 이외의 모든 활동과 IP 비즈니스를 노머스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아티스트 IP 대상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머스는 공모 자금을 신규 IP 및 운전자본 확보,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노머스는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보다 편리하게 만나고, 비즈니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멀티 서비스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손실을 불러오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고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주며, 노머스 서비스의 원천인 아티스트와의 네트워크도 견고해져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머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113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7200원~3만2000원으로 총 공모예정금액은 약 307억원~341억원이다.

수요 예측은 29일까지 5거래일간, 일반 청약은 11월 4~5일 진행한다.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원관희 기자 wkh@

美 변동성에도 '레버리지 ETF' 투자 확대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美 국채, 테슬라 등 매수세
손실 확대 가능성 인지하고 투자해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미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반도체, 미국 국채, 테슬라 관련 레버리지 ETF 등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2일~28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3X ETF(SOXL)'로, 이 종목에 약 1억3069만 달러어치가 유입됐다. 이 상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지수가 주춤하고 있음에도 서학개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해 해당 상품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불 3배 ETF(TMF)'를 2212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TMF 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테슬라 관련 레버리지 ETF에도 자금이 몰렸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TSLT)에 2011만 달러가 유입됐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약 23% 상승했음에도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추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와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도체 업종은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실적 성장이 예상돼 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주가는 내년엔 갈수록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하단 역시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폭도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므로 손실 확대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

“해외 진출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 글로벌 위원회 신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글로벌 위원회, 임원 등 9명 구성
수출 돕고 규제애로 발굴 등 추진
내달 27일 한·중 교류포럼 열고
중 진출 상담회 등 성과도출 도모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를 신설해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20명 안팎의 나라별 무역전문가를 중심으로 ‘메인비즈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새로 꾸려 시장 개척을 돕는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인비즈기업은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기업군이지만 수출 비중은 23.1%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내

글로벌 위원회는 협회 임원 및 외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 메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글로벌 진출을 막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대양주, 중동,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20개 국가, 20명 내외의 현지 무역전문가를 ‘메인비즈 글로벌 어드바이저(MAINBiz Global Adviser, MGA)’로 구성해 현지바이어 발굴·알선, 상품별 현지시장 조사, 수출 컨소시엄 현지관리, 수출상담회 개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2024년 정저우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도 연다. 여기에는 국내 중소기업 50개사와 중국 정저우 항공경제특구 관계자, 교류 희망 현지 기업, 투자회사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여한다.

교류포럼에선 3박4일 동안 한·중 기업 및 기관 관계자 교류회, 수출상담회 등을 비롯해 수출입·협업 관련 개별상담, 교류회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도모한다.

김 회장은 “중국은 지리적 이점이 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소비시장”이라면서 “중국 정저우시와는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국 중소기업 간 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올해에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024년 메인비즈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한·중 중소기업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 ▲2024 메인비즈 무역사절단 ▲베트남 K-혁신사절단 등이 대표적이다.

협회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 ‘2024년 메인비즈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을 위한 시장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4월에는 중국 광둥성 해주시와 ‘한·중 중소기업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메인비즈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또 8월8일부터 10일까지 ‘2024 메인비즈 무역사절단’ 27명과 함께 중국 허

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항공환경경제종합 실험구를 방문, 중소기업 수출입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울러 같은달 28일부터 29일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베트남 K-혁신사절단’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25개 참가기업 중 9개사가 베트남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베트남 진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메인비즈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7대 메인비즈협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1992년 당시 선박에 쓰이는 각종 선용품을 공급하는 매일마린을 창업했다. 2018년에는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차저를 만드는 세화기계를 인수해 제조분야에 뛰어들어 이후 육·해상 발전 플랜트, 조선 블록 제작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메인비즈 인준기업은 9월 말 현재 2만3995개로 집계됐다. 메인비즈협회는 약 5000곳의 정회원사를 바탕으로 전국에 96개 지회를 두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韓 핵심 경제주체 만들어낼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9일 강원 춘천 카페 감자밭에서 열린 ‘제9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참석에 앞서 카페 현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중기부는 29일 강원 춘천 감자밭 카페에서 ‘제9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현장 우수사례 공유,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소상공인·자영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분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해 소상공인을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주체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을 300억원 규모로 새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판 팁스(TIPS) 사업이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하고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

통 플랫폼으로,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선 ▲농업회사 ‘밭’ 성공사례 발표 ▲웹벤처스의 라이론 펀드 및 립스(LIPS·민간투자 연계형 매칭투자) 투자 운영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여경협, 여성경제인 육성 앞장

여학생·여성CEO 600명 참석 워크숍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여성 최고경영자(CEO) 육성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와 여경협은 29일 대전 ICC호텔에서 여학생과 여성CEO가 함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서울여대 등 4개 대학, 배화여고 등 6개 고교, 성암국제무역고 등 20개 특성화고 여학생 600여명과 여성 CEO들이 참여했다.

통합 워크숍은 그동안 여학생들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별로

진행했던 여성CEO 특강, 여성기업 현장탐방, 창업아이디어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이 소회를 밝히는 시간으로 꾸렸다.

이정환 여경협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여성기업이 앞장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김경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경제인의 성장은 곧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라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락앤락, 폐플라스틱 ‘모작벤치’로 재활용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친환경 사업

락앤락이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함께 친환경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락앤락에 따르면 자원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Love for Planet)’을 통해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한화토탈에너지스에 전달하고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이를 산업소재로 가공해 제품화를 진행하며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시작한 락앤락의 ‘러브 포 플래닛’은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

기를 수거해 생활용품, 공공시설물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으로, 국내 대표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플라스틱 밀폐용기는 제주올레길의 모작벤치 제작에 활용되어 여행객들에게 쉼터와 환경에 대한 의미를 전한 바 있다.

올해는 한국조폐공사,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보험 등 22개 단체에서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아름다운가게, 제주올레와 함께 캠페인을 펼쳐 2300명 가량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가사 ‘굳닷컴’ 셀프 플래너 서비스 오픈

신세계가사(SHINSEGAE CASA)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굳닷컴(guud.com)’이 까사미아 모듈러 가구의 셀프 설계 및 견적 확인이 가능한 ‘셀프 플래너(Self-Planner)’ 서비스를 새롭게 열었다.

29일 신세계가사에 따르면 ‘셀프 플래너’는 까사미아의 인기 모듈러 가구를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공간의 규모·형태에 맞게 설계하고 견적 확인과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24년 제2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윤현덕 송실대 명예교수(앞줄 왼쪽 4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서울본부, 고객 권익보호 나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2024년 제2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춘 공제상품으로의 진화를 모색했다.

2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가입자 176만명, 부금 27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케팅과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인 윤현덕 송실대 명예교수, 창원대 ENG 오창원 대표,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위원 9명과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도시민 끌어모을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연장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 허용 수직농장도 사용기한 8→16년 완화 스마트농업·체험농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4도3촌(나홀은 도시, 사홀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도입을 결정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연장이 가능해졌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을 위한 임시 거처 활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추진해 온 쉼터의 12년 사용 기한에 대한 연장 요구를 반영해, 시설물이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12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당초 쉼터의 사용 기한은 최장 12년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12년 제한에 대해, 일각에서

는 기간 제한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또 데크, 정화조, 주

차장 등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어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나 소방차·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린 바 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증가... 오프라인은 0.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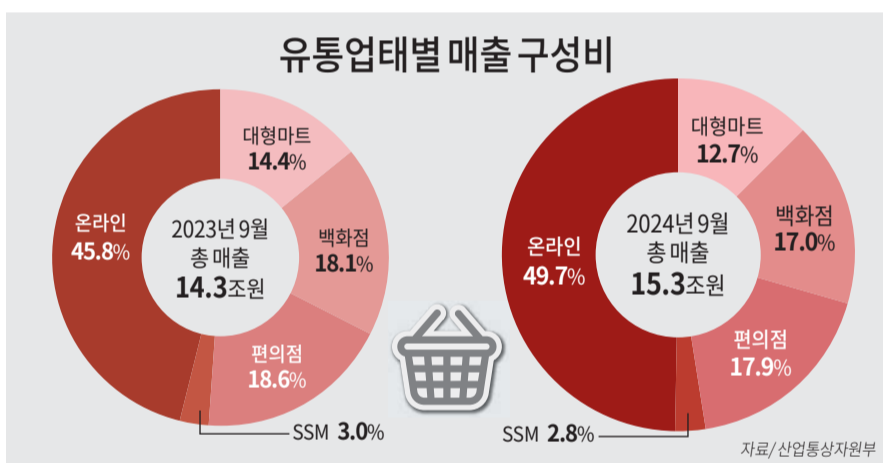
산업부,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매출 15.3조... 전년비 6.7% 증가 이른 추석 특수 '8월 매출'로 반영

올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른 추석과 늦더위 영향이란 분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1년 전(14.3조원) 대비 6.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5.7%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했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올해 이른 추석(9월17일)으로 선물 등 명절 수요가



8월에 반영됐고, 늦더위로 가을옷 구매도 감소하며 하락했다. 업체별로 대형마트(-6.5%), 준대규모점포(-2.7%) 매출이 부진했으나, 편의점(+2.5%), 백화점(0.3%) 매출은 소폭 상승

했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 추석선물용 e쿠폰·여행상품·음식배달 분야 수요가 지속 증가했고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대, 늦더위로 인한 계절가전 구매 양향을

받아 증가했다. 서비스 매출(52.9%) 증가폭이 가장 컸고, 가전/전자(18.1%), 식품(14.7%)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해외지구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패션/의류 매출은 16% 줄었다.

온오프라인 상품군별 매출은 서비스/기타(24.8% ↑), 가전/문화(17% ↑), 해외유명브랜드(3.7% ↑), 식품(3.0% ↑) 순으로 증가폭이 컸고, 패션/잡화(4.6% ↓), 아동/스포츠(3.0% ↓) 품목 매출은 감소했다.

업체별 매출비중은 온라인(49.7%), 편의점(17.9%), 백화점(17.0%), 대형마트(12.7%), SSM(2.8%)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대구·경북 13개 시군에서 쌀 민간물량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뉴스1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2.3조 농민 128만명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도합2조3000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농가)인 한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수는 128만여 명으로, 오는 11~12월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52만 명으로 총 6713억 원을 받는다. 올해는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작년(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 원/ha)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요건 검증순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국 상습 침수지 16곳에 8300억 투입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환경부가 상습 침수지역 16곳에 8300억 원을 투입해 침수 원인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1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2023년 사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총 1조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망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16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기 안양 비산동, 경기 파주 야당동, 경기 화

성 사강리, 강원 강릉 교항리, 강원 강릉 교동, 강원 고성 대진리, 강원 고성 봉포리, 강원 속초 미내리1길, 강원 속초 금호동, 충북 충주 용포리, 충북 괴산 목도리2길, 충남 당진 채운동, 전북 군산 산월리, 전남 화순 만연리, 경북 영덕 장사리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약 83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km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용인 반도체 1호 공장 부지 조성 75% 달성

산업부, 첨단산업 특화단지 협의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호 공장(뿔) 부지 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도를 보이는 등 12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서울 한 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등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갖고 특화단지 투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는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반도체 공장 1호기는 내년 초 착공,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에 대해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 여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인력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 신속히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청주, 울산, 새만금,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차전지기업 위험률 취급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이 비수도권 특화단지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제야 나무
HAPPY
 할로윈
 룰렛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4년 10월 18일(금)~10월 31일(목)

참여 방법 매장 내 이벤트 QR 찍고 이벤트 참여
(조건 : 테이블당 1회, 직원 호출 후 진행)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 블록체인 금융도시 도약”

실무자산 토큰화 거래 플랫폼 지향 부산시 연계 아이템으로 STO 선도 디지털 신분증 분야, 시민 체감률 ↑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2024가 개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 “공공이 뒷받침한 최초의 거래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8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막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2024 개최를 통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으로 부산은 블록체인 금융 도시에 성큼 다가갔다. 나아가 돈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분권형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귀금속과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위주의 토큰화 거래 플랫폼을 지향한다. 향후 토큰증권(STO)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자

산을 거래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도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성공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용범 헤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혁명이 불 것으로 보인다. 상장 가능한 모든 IP(지적재산권)들이 거래가 되기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부산디

지탈자산거래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하는 일과 연계된 아이템을 상장하고 STO(토큰증권 발행)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에 선정됐지만 이를 성공하려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ID카드(신분증)를 운전면

허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의 체감률을 높인다면 중앙정부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을 앞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BWB 2024조직위원장을 맡은 박 시장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상장 평가와 시장 감시, 예탁 결제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거래소”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WB 2024 행사에서는 부산을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도시 혁신,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화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이와 관련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대학생 서포터즈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지지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APEC 정상회의 국비지원 요청

주낙영 경주시장이 APEC 정상회의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을 차례로 만나 APEC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APEC 정상회의의 관련 사업 4건과 경주읍성 복원 등 18개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868억원을 건 의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목포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총력

목포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원인은 종량제 봉투 속 칼이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베임 사고와 청소 차량의 높은 조수석에서의 잦은 승·하차, 청소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할 때의 낙상 위험 등이다. 이에 목포시는 기능성 장갑, 안전화 등 25종의 작업 보호구를 지급하고 2019년부터 후방 저상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소형 및 예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상형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설공단 노사, 보수체계 합의서 최종 서명

올해 통합 2년 차를 맞은 부산시설공단 노사가 직원 근로 조건 일원화를 위한 통합 보수체계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2022년 8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부산시 1호 기관 통합을 이뤘다. 공단 노·사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난 4월 통합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보수체계까지 합의하며 완벽한 통합을 이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청사 로비, 민원소통 공간으로

포항시는 시 청사 행정동 2층 로비를 리모델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포항시는 민원인이 방문부서를 찾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민원 상담실에서 응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리모델링한 2층 로비 민원상담장은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운영 공간이 되어 행정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로비를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조성해 편안한 민원 응대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TK백년대계 핵심현안 논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안 등 연내 가시적 성과 위한 협력 당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의 주요 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안과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등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현안들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등과의 4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시·도의회 동의와 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45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법안의 연내 발의를 목표로 야당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SPC 사업구조의 금융이자 부담(14조 8천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를 활용한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와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필수 조항이 포함됐다.

구축한 제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일원에서 태양광 설비 준공 기념식과 벼 수확 행사를 가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 농지에서 벼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상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얻는 방식이다. /나주(전남)=양수현 기자 ysn6313@

나주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첫 수확

태양광 설비 준공 기념식·벼 수확 행사

농지에서 벼를 재배·수확하고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나주시역 첫 번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첫 수확 결실을 이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5일 남평읍 남석리 하남마을에

영양군, 수비 죽파자작나무숲 인프라 확대

인구유입 위한 관광인프라 확대

영양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나섰다. 영양군은 수비 죽파자작나무숲의 인프라를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6일 죽파리 자작나무 잔디광장에서는 작은 마을 작은 축제가 열렸다. 자작나무숲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파전, 묵, 잔치국수, 김밥, 비빔밥 등 제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붉은 가을빛과 맞닿았다. 그리고 자작나무숲으로 가는 길에는 ‘카페자작’이 있다. 카페 자작에는 수제도마를 비롯해 8명의 로컬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영양군은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다. 인구는 2024년 현재 울릉도

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1만5000명이며 의료, 문화, 교육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영양군 출생인구는 고작 103명이며 귀농귀촌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영양군은 인구유입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가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양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두레 정준영PD는 지역컨텐츠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영양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영양군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그는 죽파자작나무숲이 인프라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포항시, 제철공정 AI 자율화 기술확산 도모

2028년까지 총사업비 125억 투입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에서 철강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서울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 및 기관과 AI 자율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자율제조 기술 확산과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데 뜻을 모으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에서는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및 지원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 ▲AI 자율 제조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 ▲AI 자율 제조 추진 및 확산에 관계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시는 이번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의 철강 분야에 공모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 뉴로메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지역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제철 공정의 AI 자율화를 위한 모바일 자율로봇 기술개발과 지능형 고효율 제선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의 AI 자율 제조 도입률을 오는 2030년에는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뮤어·요노·보헤미안까지... '트렌드 패션' 마케팅 분주

버커루 '우먼 벨벳 데님' 선봬
드뮤어 트렌드 '절제미' 돋보여
카카오스타일 양면 착용 가능한
리버시블 코트·재킷 검색량 급증
미쏘 보헤미안 트렌드 반영한
시즌 상품군 '어반보호' 선보여



미쏘 어반 보호(URBAN BOHO) 캡슐 컬렉션 화보. /이랜드

패션업계가 드뮤어(Demure), 요노(YONO), 오피스코어(Officecore) 등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제시하며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업체들은 2024년 가을·겨울 시즌 상품을 출시하면서 소비 트렌드를 강조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패션 마케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비 트렌드는 '드뮤어'다. 드뮤어 트렌드는 절제되고 우아한 스타일을 강조하며 차분한 색상, 간결한 디자인, 과

하지 않은 디테일을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한세엠케이의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 '버커루'는 지난달 드뮤어 트렌드를 반영해 절제미가 돋보이는 '우먼 벨벳 데님' 제품을 선보였으며, LF의 캐주얼 브랜드 '딘스트' 역시 드뮤어 트렌드를 겨냥해 겨울 아우터 상품군을 출시했다. 신발 멀티스토어 ABC마트 역시 드뮤어룩을 겨냥해 '누오보'와 '스테파노로시' 등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놓았다.

ABC마트 관계자는 "올드머니룩, 뉴 클래식룩에 이어 단정한 스타일링에 대한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대세를 반영해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올가을 드뮤어룩에 딱 맞는 새로운 슈즈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 트렌드로는 '요노(YONO, You Only Need One·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 트렌드가 있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양면으로 착용할 수 있는 '리버시블 코트'와 '리

버시블 재킷'의 검색량이 각각 700% 이상 증가했으며, 탈부착 가능한 모자가 달린 '탈부착 후드'의 거래액도 43% 늘었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앞으로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셀렉션을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하여 지그재그에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랜드의 '미쏘'는 자유롭고 개성 있는 스타일의 보헤미안 트렌드를 반영해 2024년 가을·겨울 시즌 상품군인 '어반 보호' 시리즈를 선보였고, 남성 정장 브랜드 랄프 로렌은 오피스코어(전형적인 직장인이 입을 것 같은 옷스타일) 트렌

드를 반영해 '탈프 로렌 퍼플 라벨' 남성 슈트 제품군을 출시했다.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제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가능한 배경으로 소비자 취향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자문업체인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소비 시장을 분석한 발표 자료를 통해,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변화하던 '솔리드 소비' 패턴이 점점 더 유동적이고 고정되지 않은 '리퀴드 소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소비 트렌드의 지속성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며 "다양화되는 소비에 맞춰 패션업계도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한세엠케이 '버커루', 2024 가을 컬렉션 '우먼 벨벳 데님' 페미닌 드뮤어룩 모델 착용 모습. /한세엠케이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빼빼로데이' 알린다

롯데월드, 토퍼길드 등 10명 韓 방문
빼빼로 맛보고 미국에 택배로 발송
성수 팝업서 숏츠 챌린지영상 촬영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에서 해외 유튜브 토퍼 길드가 한국 '빼빼로' 쇼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다. /롯데월드.

롯데월드프드는 글로벌 메가인플루언서 토퍼 길드와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 10인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빼빼로데이' 알리기에 나섰다. 29일 밝혔다.

롯데월드프드에 따르면 약 46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해외 유튜브 토퍼 길드는 최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빼빼로를 마련했다.

토퍼길드는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에 마련된 빼빼로데이 전용 구역에서 다양한 맛의 빼빼로를 맛본 후 빼빼로와 메시지 카드를 담은 택배를 미국으로 발송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색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한 '빼빼로 하우스'를 제작해 영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는 빼빼로와 빼빼로데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나눔 문화와 K과자의 위

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우선, 10인의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롯데월드프드 본사를 찾았다. 리포터들은 빼빼로 브랜드 소개와 빼빼로데이의 탄생 과정을 들은 후 롯데마트로 이동해 빼빼로데이 기간에만 느낄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경험했다. 또 서울 성수에서 열린 '빼빼로 미니 팝업스토어'에서 기획 제품과 굿즈를 구경하고, 빼빼로 캐릭터인 '빼로'와 함께

숏츠 챌린지 영상도 촬영했다.

이와 함께 나만의 빼빼로 만들기, 한복 입기, 광화문 관광, 길거리 인터뷰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녹인 각양각색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빼빼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롯데월드프드는 향후에도 빼빼로 브랜드 핵심 가치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의 경우, 지난 9월 모집 당시 총 58개국에서 약 700명이 지원해 K과자에 대한 관심이 세계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 롯데월드프드 측의 설명이다.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 전체 지원자 중 40%가 미국 거주자였으며 필리핀 11%, 캐나다 8%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까지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美 타임스퀘어에 '스플래시 불닭' 떴다

전광판에 4주간 광고 게재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지난 23일(현지 시간)부터 약 4주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스플래시 불닭' 광고를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대표 관광명소이자 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교차하는 예술 문화의 중심지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랜드마크인 만큼 1년 365일 내내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글로벌 대기업과 브랜드의 광고가 쉬지 않고

송출된다.

삼양라운드스퀘어에 따르면 '스플래시 불닭' 타임스퀘어 옥외광고는 10초 분량으로, 매일 864회씩 브로드웨이 티켓 부스와 더피 광장 옆 전광판에서 노출된다. 4주 동안 총 2만4000회 이상, 러닝타임만 약 67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스플래시 불닭 광고는 '뜨거운 걸 원하니?'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연출로 불닭소스의 매력을 극대화한 영상이다.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 각종 음식에 불닭 소스를 뿌리는 호치의 모습을 담

아 불닭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것이 삼양라운드스퀘어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번 타임스퀘어 광고를 통해 'K소스'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의 식탁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불닭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오는 11월 7일부터는 미국 LA에서 '소스 익스체인지'를 진행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앞서 지난 11일 글로벌 통합 캠페인을 시작해 미국 뉴욕에서는 이미 '불닭 라이더'와 '소스 익스체인지'를 마쳤다.

/이청하 기자

롯데백 "뷰티상품 최대 50% 혜택 받아요"

내달 1일~10일 '슈퍼 뷰티 위크'

롯데백화점이 130여개 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슈퍼 뷰티 위크'를 진행해 연말 선물 수요 공략에 나선다.

11월은 뷰티 브랜드 홀리데이 컬렉션과 기프트 아이템이 출시되는 등 뷰티 상품군의 하반기 최대 성수기다. 또한 화장품 상품군의 하반기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슈퍼 뷰티 위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인기 26개 뷰티 브랜드에 한해서 정가 대비 최대 50% 상당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브랜드 제품을 3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 시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제공하며, 롯데백화

점 앱을 통해 10% 추가 할인 쿠폰을 다룬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표 상품은 '랑콤 제니피끄세럼', '에스티로더 갈색베 세럼', '비오템 아쿠아 파워 올인원' 등이 있다. 해당 제품 2개 구매 시 동일 제품 또는 정품 수준 상당의 대용량 샘플을 증정한다. 또한 '입생로랑', '시세이도', '겔랑' 등 뷰티 브랜드에서도 정품 증정 프로모션을 롯데백화점 단독으로 진행한다.

연말 한정으로 출시하는 홀리데이 기프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디올'에서는 2024년 홀리데이 컬렉션 '디올 포에버 쿠션 믹스&매치', '루즈 디올 포에버 리퀴드 시퀀'을 '메이크업 포에버'에서는 '올트라 HD 프레스트 파우더'를 포함한 3종의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뚜레쥬르 '잔망루피' 카톡 전용제품 출시

'짜잔! 잔망루피 꽃다발' 등 2종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협업한 신제품 2종을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제품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잔망루피는 귀여운 얼굴과 익살스럽고 잔망스러운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전 세대를 아우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뚜레쥬르 x 잔망루피 신제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나에게 선물하기 또는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으며, 가까운 뚜레쥬르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배달도 연결 가능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최대 1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뚜레쥬르 매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먼저 '짜잔! 잔망루피 꽃다발'은 잔망루피를 담은 핑크톤 케이크로, 꽃다

발을 든 잔망루피 초콜릿 장식으로 꾸며졌다. 케이크 속은 촉촉한 초코 시트에 초코 크림과 다크 초코 가나슈가 더해져 진한 초코 맛을 갖췄다.

'잔망루피 이모션 풍카롱 세트'는 우유 크림에 베리 잼으로 상큼함을 살린 딸기우유 풍카롱 2개, 달콤함이 가득한 초코 풍카롱 2개로 구성됐다. 풍카롱에는 잔망루피의 다양한 표정이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CJ푸드빌은 이번 협업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모바일로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CJ푸드빌은 일상에서 소중한 마음을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기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화 박차 美 3대 PBM 공·사보험 등재 계약

美 시장 90% 커버리지 달성
SC제형 등 차별화 제품성 주효
국내 첫 블록버스터 기대감 고조

셀트리온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 리업체(PBM)에서 운영하는 6개의 모든 공·사보험 영역에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를 등재시키는 계약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출시 7개월 만에 미국 시장 90%의 커버리지를 달성해 국내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탄생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3대 PBM 중 한 곳을 대행하는 의약품구매대행사(GPO)와 사보험 처방집 등재 조건을 협의한 결과, 지난 25일(현지 시간) 최종 합의에 이르러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짐펜트라를 출시한 이후 보름여 만에 3대 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스크립츠(ESI)와 등재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7월에 또 다른 대형 PBM 한 곳과 등재 계약을 맺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 /셀트리온

며 8월에는 나머지 한 곳과 공보험 등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3대 PBM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짐펜트라 계약이 완료된 중대형·소형 PBM 및 보험사는 총 30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공·사보험 커버리지를 모두 합칠 경우 미국 보험 시장의 90%가 넘는 규모다. 출시 7개월여 만에 이뤄낸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염증성장질환(IBD)의 대표적인 질병인 궤양성 대장염(UC) 및 크론병(CD) 환자 중 바이오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가 약 46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뛰어난 치료 효능에 투약 편의성까지 갖춘 짐펜트라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가장 큰 원동력으로 차별화된 제품성을 꼽았다. 짐펜트라는 세계 유일의 SC제형 인플릭시맙 치료제로 2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며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인플릭시맙을 투약 편의성까지 개선해 출시한 제품이다. 상대적으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미국 시장의 특성상, 정기적인 병원 방문 없이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가투여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환자 및 의료진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달 유튜브를 시작으로 개시된 짐펜트라 미디어 광고가 이달에는 TV 광고로도 송출되며 미국 전역에서 제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가 증폭되고 있는 점도 처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는 미국 전역 500개 병원을 시작으로 대기실 등 병원 내 미디어 광고도 개시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참여 mRNA 백신 초신속 생산시스템 개발 착수

'백신 탈집중화' 핵심 과제 선정

인벤티지랩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100만 도즈를 100일 내 생산하는 초신속 생산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내 백신 주관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벤티지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DeCAFx)' 과제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도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해결이 어려운 보건으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설립된 혁신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가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 추진중인 APRA-H 프로젝트를 참고한 한국형 과제다.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며

톨릭대학교, 인벤티지랩, 엔지노믹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전염병 발생 시 mRNA 백신 100만 도즈를 100일 내에 초신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과제 기간은 4년 6개월이며 과제 규모는 176억원으로 중요도가 높은 대형 과제에 속한다.

ARPA-H 프로젝트의 특징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발해 과제수행에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기관들은 mRNA 백신의 전체 제조과정인 mRNA 설계/최적화, 합성, LNP 제형화, 대량생산을 모듈화하고, 이를 통합한 백신 생산용 컨테이너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LNP 제형개발 및 제조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에스티젠바이오, CMO·CDMO 역량 입증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

美 cGMP 승인, 유럽 GMP 통과

동아쏘시오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가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에스티젠바이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승인 획득, 유럽 의약품청(EMA)의 우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통과 등을 잇따라 완료했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첫 도전으로 두 글로벌 규제기관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게 된 것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의약품 생산 시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하기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시설 고도화와 시스템 내재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고 설명했다.

에스티젠바이오의 핵심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다. 에스티젠바이오는 항체의약품, 재조합 단백질 등과 관련된 원료의약품과 프리필드스리니지 제형의 완제의약품을 생산



에스티젠바이오 사옥 전경. /동아쏘시오그룹

하는 설비를 약 9000L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허가와 함께 에스티젠바이오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스텔라라바이오 시밀러 '이물도사(성분명: 우스테키누맙)' 생산 지지 역할을 하며 품질경영 기반의 CMO 전문기업 역량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유럽 등 거대 의약품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는 이물도사의 상업화물량 전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물도사 생산이 본격화되면 에스티젠바이오는 대형 품목을 내놓음으로써 고객사 추가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K-바이오, 항암 파이프라인 확장

한미약품, 'MAT2A 저해제' 첫 선

'합성치사 원리' 작용 신약
난치성 암 새로운 돌파구 제시

한미약품이 세계적 권위의 암 학회에서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인 'MAT2A 저해제'를 처음 공개했다. MAT2A 저해제는 암세포의 대사적 취약성을 표적으로 삼아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난치성 암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암 학술대회 'EORTC-NCI-AACR 2024'에서 ▲MAT2A 저해제(HM100760) ▲선택적 H

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 ▲SOS1 저해제(HM99462) 등에 관한 연구 결과 3건을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화제를 모은 MAT2A 저해제는 세포 내 특정 대사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틸티오아데노신 포스포릴라제(MTAP) 유전자 가 결실된 암 종을 표적으로 해서 '합성치사 원리'로 작용하는 항암신약이다. 한미약품은 내년 상반기 경 비임상 독성 시험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른 발표에서는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를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

가 소개됐다. 야생형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구 투여를 통해 HER2 엑손20 삽입 변이 및 HER2 야생형 종양 동물 모델에서 항암 활성을 나타냈다.

한미약품이 세번째 발표한 HM99462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 치명적인 'KRAS 변이'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호전달 연쇄 역할을 하는 'SOS1' 단백질과 KRAS 간의 결합을 억제하는 새로운 SOS1 저해제다. 한미약품은 내년 상반기 중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AI·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개발 속도

템퍼스AI 협력... 연구 효율성 향상

JW중외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미국 템퍼스AI와 협력해 실제 임상 데이터(RWD)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29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종양학 분야에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신

속히 진행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JW중외제약은 신약 후보물질의 적응증을 다양한 암종에서 확보하기 위해 템퍼스AI가 보유한 임상 기록, 병리 이미지를 비롯한 멀티모달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템퍼스AI는 실제 암 환자 종양에서 유래한 다양한 오가노이드 모델도 제공한다. 이 모델들은 환자의

종양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템퍼스의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인 xT를 통해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연계된다.

양사는 오가노이드 연구 결과를 실제 환자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시험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해 최적의 맞춤형 항암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광동제약, '썬키스트 키즈 트리플 구미' 출시

광동제약은 신제품 '썬키스트 키즈 트리플 구미 이문하이'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썬키스트 키즈 트리플 구미 이문하이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어린이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칼슘,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를 포함한다.

또 이번 신제품은 착색료를 넣지 않고 프락토올리고당, 비타민C와 과채가 공품을 부원료로 사용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광동제약 측 설명이다.



썬키스트 키즈 트리플 구미 이문하이 /광동제약

해당 제품 1일 권장 복용량은 2개이며 개별포장된 60개입으로 구성됐다. 광동상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No.1을 넘어 Only.1으로
한양사이버대학원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 ✓ 글로벌 TOP100 6위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원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원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개원,
일반대학원 온라인 석·박사과정 / 경영전문대학원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적학생 수(1,240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원 25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모집

2024년 11월 01일(금) ~ 12월 12일(목)

대학원	학과	
일반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법·행정
	도시건축공학	교육공학
	아동가족	디자인기획
	상담및임상심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마케팅, FA&T, IT경영, 광고미디어 트랙)	

맞춤형 석사과정

학점/논문과정
선택 가능



입학지원

대학원 입학문의 | 02.2290.0700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우리은행-포스코이앤씨, 고액자산가 특화서비스 확대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와 고액자산가 특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프리미엄 주거와 1:1 맞춤 금융서비스를 통합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KGC인삼공, 농식품부 과학기술대상 장관 표창 수상
KGC인삼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교 건식연구소장(오른쪽)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한국엔컴퍼니,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행사를 갖고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총 300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



금투협, '사랑의 김치페어' 행사... 3.2억 상당 기부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금융투자회사(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사), 증권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제14회 사랑의 김치페어' 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3억2000만원 상당의 김치는 초록우산 사회복지시설 160여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투협



호서대, 캡스톤 디자인·AI 해커톤 대회 석권
호서대학교는 '2024 캡스톤 디자인 및 AI 해커톤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호서대는 생성형 AI 부문과 AI 알고리즘 활용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호서대

인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선임 ▲토스인사 이트 손병두 ▲토스플레이스 최재호

LG전자, 사용자 눈높이 맞춘다...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 제품·서비스 영상 9편 공개



LG전자는 29일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 영상 9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LG전자

LG전자가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시니어 이용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을 전개한다.

LG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 ▲손쉽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돕는 보조 액세서리 ‘컴포트 키트’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일대일로 매니저의 도움을 받는 ‘베스트동행 케어 서비스’ 등 자주 쓰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튜토리얼 영상 9편을 제작해 LG전자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이용자에게 필수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3분 이내로 간결하게 구성했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가장 이용하기 쉽도록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베스트동행 케어 서비스’ 영상의 경우 사이트에서 예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는 유선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 통역 예약 방법을 알려준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더빙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설명 화면 ▲저시력자를 위한 명도가 높은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한 자막 ▲시니어를 위한 큰 자막 등을 모두 갖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LG전자는 영상에 이용자가 실제 느끼는 불편과 해결책을 담아 공감

대를 높였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세탁기 종료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수시로 제품을 확인했던 사례를 이야기하고 ‘LG 씽큐’를 활용해 알람 메시지를 받는 방법을 알린다.

LG전자는 영상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장애인, 시니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접근성 자문단’과 함께 영상 속도, 내용의 이해도 등 검수를 거쳤다.

아울러 자문단 컨설팅을 통해 최근 주요 검색 포털에서 매장 검색 시 휠체어 접근 가능 유무 및 장애인 주차구역 정보를 표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삼수 LG전자 CSO 부사장은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제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전자, 내달 ‘SDC’ 온라인 개최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전경훈 DX부문 CTO 환영사 예정
생성형 AI 등 연구·개발 성과 공유

삼성전자가 내달 21일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SDC 2024)’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발자 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통신 ▲데이터 등 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해 오픈소스 개발 문화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경훈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환영사를 한다.

키노트에서는 ‘삼성전자의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디바이스 플랫폼 사용 경험 향상’ 등이 소개된다.

정진민 삼성전자삼성리서치SW 혁신센터장은 “올해에는 개발자의 발표 비중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삼성의 연구개발 활동을 더 많이 공개한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개발자들과 의미있는 교류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 해킹·보안 콘퍼런스 ‘POC’ 후원

채용 부스 운영... 우수 인재 영입

현대자동차가 국내외 사이버 보안 관련 인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대차는 다음 달 7~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해킹·보안 콘퍼런스 ‘POC(Power of Community) 2024’에 최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POC는 POC 시큐리티가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주최하는 국제 해킹·보

안 콘퍼런스로, 국내외 사이버 보안 연구원과 기업이 해킹 보안 기술 및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올해는 브라우저, 운영체제, 가상화, 모바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으로 주제가 확대된다.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로는 유일하게 이번 행사의 후원사로 참여하게 됐다. 현대차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사장에 채용 홍보 부스를 운영해 우수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스타벅스 “소상공인 카페, 음료 지원해드려요”

6차 상생음료 지원... 6만 잔 분량

스타벅스코리아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함께 ‘제6차 스타벅스 상생 음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카페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제6차 상생음료 지원을 통해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 재료 6만 잔 분량을 전국 150개 소상공인 카페에 무상으

로 제공한다.

스타벅스 상생 음료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카페는 내달 10일까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네이버 카페, 소상공인 카페 선호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상생음료 지원 선정 매장은 내달 18일 발표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춘천마라톤’ 완주

임 대표 “팀 한양의 가치 증명”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과 임직원 16명이 지난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 춘천마라톤’에 참가해 풀코스를 완주했다.

29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임 대표는 올해 초부터 ‘2024한양증권 가을의 전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한양증권은 222일 동안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마라톤이 열린 27일 당일, 마라톤에 도전하는 직원들과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서포터즈까지 8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춘천행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한 명씩 결승점에 다다를 때마다 격려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러닝 경험이 없던 직원들이 대거 풀코스를 완주해냈다. 임재택 대표이사는 “한양증권은



임재택(왼쪽) 한양증권 대표가 지난 27일 열린 ‘2024 춘천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완주하며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한양증권

단단한 신뢰망이 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일도 우리의 손을 거치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지난 7년간 최고의 강한 증권사를 향해 고수 성장해온 팀(Team) 한양의 가치를 마라톤을 통해 증명해 기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투증권,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추진

생존권 보장,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한국투자증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생존권 보장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꿈·희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 가정 중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가정 10곳을 선정해 식비·의료비·공과금 등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한국투자증권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기부한 ‘매칭그랜트’ 기금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어려운 여건에 놓인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역이기를 위하여



김준영의
청명광니

중국의 진나라 말기, 진류현에는 나이가 60이 넘는 역이기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책읽기를 좋아했고, 뛰어난 능력과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류현의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집안이 가난했던 역이기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했다. 성문을 드나드는 소위 '영웅'이란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자신이 의탁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유방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역이기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유방을 만날 수 있었다. 유방을 만났을 때, 유방은 의자에 앉아 시녀에게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하고 있었다. 역이기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봉기를 하였다'는 자가, 연장자를 이런 태도로 맞이하는가?라며 호통을 쳤다. 유방은 역이기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깨닫고, 그를 상석에 앉혔다. 이후 역이기는 유방을 도와 진나라와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역이기는 나이 60이 될 때까지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유방을 만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긴 역사 속에서, 넘칠 만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능력을 썩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능력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최근 흑백요리사라는 예능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다. 스타 셰프인 '흑수저'들에게 재야의 고수 '흑수저'들이 도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흑수저들 중에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시던 '급식대장', 중식당의 배달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식당을 차린 '철가방', 만화책을 보고 요리를 배웠다는 '만찐남'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 모두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다. 비록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아니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틈틈이 요리를 연구하셨지만, 그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다. 최고의 셰프 앞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은 당당했다. 가끔씩 흑수저 요리사가 승리할 때, 시청자들은 박수를 쳤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

는 희망을 보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가슴이 뻥 뚫리게 만드는 카타르시스였다. 이 흑수저 요리사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시대의 '역이기'인 것이다. 물론 맛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분야다. 그래서 올림픽의 육상경기처럼 완전히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출연한 요리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발휘했다. 경쟁이란 것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경쟁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 백수저 요리사이든, 흑수저 요리사이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철학을 요리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웠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일 것이다. 경쟁의 기회, 공정한 심사,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주신 여러 요리사님들께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모든 분야의 '역이기'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 **48년생** 불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물이 필요 한 것. **60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 법. **72년생** 우는 아이는 굶지 않으니 지인의 조언을 구하라. **84년생** 삶에는 스스로 궁구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
- 37년생** 고집을 부리면 일하고도 고맙단 소리 못 듣는다. **4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으면 좋겠다. **61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여서 일 처리할 때. **73년생** 이상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85년생** 언제나 마음은 고향에.
- 38년생** 행운이 바로 앞에 있다. **50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밧 갈이라 봐 주는 사람이 없다. **62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후회가 많았다. **74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곧 인정받으니 마음을 차분하게 하자. **86년생** 가족을 챙겨야 화목하다.
- 3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51년생** 주변에서 뜻밖의 행운이 있다. **63년생**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75년생** 일반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상대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욕심은 그만. **87년생** 좋은 일이 많은 날.
- 4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52년생** 산뜻한 출발이 있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 **64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76년생** 마음먹은 대로 밀고 진행된다. **88년생** 타처럼 말고 시간과 열정을 갖고 기술에 투자.
- 41년생** 어제는 내 사람 오늘은 모르는 타인이 사람이던가. **53년생** 직장의 변동 수가 있으니 마음에 신념을 갖자. **65년생** 차과 진료가 있을 수. **77년생**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우선 시작해보자. **89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서라도 달래야 해.
- 42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54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 **66년생**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약속의 예의가 중요하다. **78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할 시기. **90년생** 자녀와 불화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
- 43년생**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55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67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79년생** 종일 우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답답하다. **91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데.
- 44년생** 지금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날. **56년생** 조직의 뜻에 따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68년생** 오늘은 무슨 일든 시작. **80년생** 운명적인 인연이라 해도 시간을 가져야. **92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상태.
- 45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57년생** 이혼이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오늘 깨닫는다. **69년생**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니 안부 전화를. **81년생** 자신이 갈 길 아닌 곳에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하지 말자. **93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 46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58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대인관계에서 적이 없을 듯. **70년생** 새로운 이성의 유혹이 있으니 중심을 잡자. **82년생** 어शल론 지식체가 무지함보다 못할 수 있으니 공부. **94년생** 뒷산으로 가벼운 등산을 해보자.
- 47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59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옷감이 일이 해결. **71년생** 지식 없는 투자는 불리하니 다음에. **83년생** 몸 건강도 챙겨야지만 바쁘게 지나자. **95년생** 타인의 고통을 자신만의 잣대로 경중을 가리지 말자.

망사용료, 국내기업은 죽어나고 빅테크는 무임승차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사용료 미지급에 대해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망사용료는 넷플릭스, 트위터,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이를 두고 ISP와 CP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ISP는 CP가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는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망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됐다. 트위터가 철수 이유로 한국의 비싼 망사용료를 꼽았기 때문. 반면 이달 열린 국감에서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 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튜브를 보유했던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서 구글과 애플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서 망 무

임승차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내는 구체적인 디지털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위한 기관 설립 논의가 약 2년간 진행 중이고, 남미에서는 내년 중으로 관련 법이 나올 전망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 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말이 곧 마음

시대는 조선 어느 시골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백정이 고기를 팔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백정의 이름을 몰랐기에 아이 때부터 불리오던 막둥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고기를 사러 온 한 사람이 "어이 막둥아, 고기 한 근 다오" 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고기를 사러 온 어떤 사람은 "김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라고 말했다. 어찌 됐을까. 두 사람은 똑같이 한 근의 고기를 샀지만 들고 간 양은 서로 달랐다. 김서방이라고 부른 사람이 막둥이라고 부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빈정을 사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짧은 그 세 치 혀로 인해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칼보다도 모질게 남을 아프게도 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엄두설한처럼 굳어버린 마음에 희망과 햇살이 되기도 한다. 혀의 힘이자 말의 힘인 것이다.

필자는 요즘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상담 때에도 나름의 성의를 담고 있다. 코로나 이후 물가는 고공행진이며 높아진 금리는 서민들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든다. 팍팍해진 시대임을 알기에 예전보다 시간도 많이 할애하여 함께 길을 찾아보는 심정이 되는 것이다. 사주 명조를 감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定性的) 마인드로 다가가야 한다. 물론 마음이 담긴 정성(精誠)도 함께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상담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예전에 그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려워진 시대에 필자의 마음이 더 단절해졌다고나 할까? 모쪼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내 마음이다. 삼재 구설에서도 보듯이 옛사람은 '입의 화' 즉 구설(口舌)을 몹시도 두려워했다. 현대라고 해서 다를까? 말 한마디의 위력을 가볍게 보시지 않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2					3
	4		8	9	6	
8		5	2			1
	1					3
	6		1	4		9
2	5		4	7	9	6
9						5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8	7	9	1	8	6
1	9	8	6	2	7	8	9	2
6	2	8	9	1	8	7	2	9
8	6	2	7	8	1	9	9	2
9	8	9	2	8	6	2	1	7
2	2	9	9	6	8	8	7	1
8	8	6	1	2	2	2	9	2
8	6	1	2	2	2	9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현금성 복지지출 많으면 '페널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올해 예산 4.3조 가량 줄어들어 예산 과다 이월·불용 페널티 대상 페널티 비율 높은 8곳 10억씩 삭감

앞으로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받을 때 페널티가 부여된다.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부금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 기준 68조9000억원 규모가 편성됐지만, 정부는 최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라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64조6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한다. 또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비율이 높은 8곳을 골라 10억원씩 삭감할 예정이다.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한다. 과다 이월액이나 불용액도 페널티 대상이다.

이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해 모은 예산은 신규 정책분야에 투자를 유도한다. 심화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 지원항목을 개편해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및 기반 시설(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

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현장(시도교육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사항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 시부터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용도 건축물 보정공사비 8% 상승률 반영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적정한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지침을 만들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늘어난 공사비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2년 새롭게 바꾼 가이드라인을 손질했다.

우선 시는 지난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



서울시청. / 손진영 기자

영기로 했다.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사업 3년 치 공사비 등을 검토해 산출했다.

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의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투명성 기여

국토부와 검증 시범연구사업 협약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연장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증액교부금 세입반영 못해 교육재정 상황 반영 대책 강구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2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다.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 일반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된다. 일몰시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지고,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정근수 교육감은 “올해 중앙 정부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 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10조8102억원)와 비교해 3500억원 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65억원(19.3%)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1조7310억원 감액)에 이어, 2025년에는 10조8102억원(3503억원 감액)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5 | 해질 / 17:36

10월 30일(수) / 음력 : 9월 28일

수도권 날씨 / 11~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9/19, 동두천 9/20, 가평 9/20, 파주 8/20, 서울 11/21, 양평 11/20, 인천 12/19, 수원 12/20, 용인 12/20, 평택 10/20, 백령도 14/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사전투표 마친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당선될 것” /사진 뉴스1
▲머스크, ‘해리스’ 폼하 발언…“암약 세력 ‘꼭두각시’…암살해도 무의미”

▲“中·인도, 국경 분쟁지역 주둔 병력 80~90% 철수”
▲러시아군, 이달 우크라 영토 기록적 진군…2년 7개월만 최대



▲총선서 與과반수 실패에 궁지몰린 디이시바…“野에 부분 연합 타진 방침”
▲‘최고령’ 프랑스 총리, 목 주위 수술 마치고 업무 복귀 /사진 뉴스1



드뮤어·요노 등
트랜드 패션
마케팅
너



Life

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화 박차
L2



14일 오후 어르신들이 솔밭근린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현정 기자

사계절 녹음 가득... '1000그루' 소나무 숲에 빠져볼까

♥ 되살아나는 서울

119 강북구 '솔밭근린공원'

서울 강북구에는 '우이동'이란 마을이 존재한다. 도봉산 산봉우리 가운데 소의 귀처럼 생긴 쇠귀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 지명 사전'에 따르면, 조선 시대 초부터 우이동은 한성부 동부 성외 지역이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서울 행정구역을 5부 8면제로 개편하면서 이 마을은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우이리가 됐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한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우이리는 시에 재편입되고 새롭게 생긴 성북구로 들어가게 됐다. 우이동은 그로부터 24년 뒤인 1973년에 신설된 도봉구에 흡수됐다가, 1995년 강북구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속하게 됐다.

◆주민이 지켜낸 소나무 숲

지난 14일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솔밭근린공원을 찾았다. 우이신설선을 타고 4.19민주묘지지역에서 하차해 2번 출구로 나와 도봉도서관 방향으로 308m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는 건 벤치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고령자들이다. 사교성이 있는 노인들은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눴고 낮을 가리는 어르신들은 입을 꼭 닫고 앞만 바라봤다. 하릴없이 시간을 축내는 모습이 신선 놀음을 하는 것 같아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치밥을 먹으며 도시를 배회하는 비둘기처럼 보여 짝하기도 했다.

가을의 낙엽처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공원의 소나무들은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굴하지 않고 짙은 녹음을 뽐냈다. 솔밭공원은 서울 유일의 평지형 소나무 군락지로 60~100년생 소나무 1000여그루가 자라나고 있다.



시민들이 솔밭근린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

강북구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당초 사유지였던 소

사유지였던 소나무 자생지, 근린공원으로 조성 60~100년생 소나무 외 34만본 초화류 식재해 산책로, 생태연못 등... 곳곳에 '소나무 시' 전시

나무 자생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서울시로부터 매입비 일부를 지원받아 160여억원을 투입해 공원 녹지를 조성했다. 구는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하고, 옥잠화, 노루오줌, 원추리, 하늘매발톱, 금낭화, 비비추 등 약 34만본의 초화류를 추가로 식재해 지난 2004년 1월 28일 솔밭근린공원을 개원했다.

소나무 숲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 침엽수와 어우러진 단풍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노랑과 붉은 물결을 이뤘다.

◆자전거·배드민턴·장기... 놀 거리 가득

솔밭근린공원에는 생태 연못, 그늘 시렁, 산책로, 데크 광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 무대, 놀이 마당, 바닥분수 등이 설치됐다. 이날 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제 또래들이 즐기고 있는 놀이거리를 찾아 함께 어울렸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거북이 등딱지 같은 가방을 놀이터에 내팽겨쳐놓고 그네를 향해 달려갔다. 신 나게 노는 모습을 구경하던 엄마들은 목마르다고 징징대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음료를 주문하러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은 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했고, 20~30대 청년들은 헤드폰을 머리에 얹고 빠른 걸음으로 산책했다. 중장년층은 둘 혹은 넷씩 짝을 이뤄 배드민턴을 즐겼다.



어르신들이 솔밭근린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할아버지들은 콜라 캔처럼 생긴 벤치들이 놓인 쉼터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한 수 물러줘", "에헤이~" 하며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는 익살스러운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솔밭근린공원만의 볼거리로는 '소나무 시'가 있다. 서울 시내 공원 중 소나무를 주제로 한 시가 가장 많이 전시됐다. '하고 싶은 말을 / 죄다 안으로 삭여서인지 / 바늘처럼 돌아난 진초록의 / 무성한 잎, 그 입술들 //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달라져도 / 말 없는 말들만 낮지만 높게 쟁이듯이 / 등 구부린 채 하늘을 끌어안는 저 나무들.'

솔밭근린공원에서 소나무 숲길을 거닐다 만난 아름다운 시구절들이 삶을 예찬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넛마블조정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12개 메달 획득 /사진 뉴시스
▲스페인 미드필더 로드리, 2024 발롱도르 수상... '세계 최고 축구선수' 영예

▲경복궁 '건청궁'·왕실 휴식공간 '향원정' 특별 개방...내일부터 선착순
▲남산골한옥마을서 '제2회 월드판소리페스티벌'



▲NBA 레이커스, '부커 33점' 앞세운 피닉스에 시즌 첫 패배 /사진 뉴시스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3차전도 양키스에 4-2 승리...우승까지 단 '1승'